

남원시, 폭우 피해 최소화

사망 등 인명 피해없어 우수저류시설로 침수예방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남원시가 철저한 대비로 8~9월 집중호우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지역에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총 240mm(26일 156mm, 27일 87mm)의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 8~9월 들어 491mm의 비가 내렸으나, 사망이나 실종 등 인명피해 없이 도로침수와 토사유출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해만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상습 침수지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거시설 정비,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시설을 향교동에 완공했으며, 이 시설은 빗물 1만5,000여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동충, 왕정, 향교동 300여 가구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풍천, 갈치천, 송치천 등 지방하천 9개 지구에도 122억7천7백만원을 들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하천으로 정비하고, 194억원을 들여 상습침수지역인 이백 남계

지구 배수로와 조산 재해위험지구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대강 사석지구는 배수관로 확장으로 피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자연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남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 행정력 집중

임실군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실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킨다.

4일 군에 따르면 소재지 근계회도로를 개설하고 주요지점의 교차로를 개선, 보도를 확보하는 등 군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사고 위험도 등에 대한 환경개선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교차로인 구의료원 육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국도 30호선인 오정삼거리도 회전교차로 설치한다.

심 민 군수는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은 곳, 소재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전개



임실군은 교통사고 위험도 등에 대한 환경개선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실읍의 도시 확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투자

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건강한 일상위한 명절 불법행위 근절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21일까지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

로 위생관리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만 암 의료비 지원신청(063-620-7926)로 문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암 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가족한마당 행사에 7000여명 참석해 소방대원 및 가족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소방가족들 '한마음' 되다

임실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성료

임실군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정용석, 심미혜)는 4일 임실군민회관에서 2018년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 민 임실군수와 이선재 소방본부장, 한완수 도부외장, 안준식 전주완산소방서장, 관련 유관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 소방공무원 등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기술경연을 통한 대원간 유대관계 도모 및 소방기술 향상과 효율적인 현장 대응능력, 지역 자율 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화재현장 및 재난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가족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 차원에 의미를 두고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방

화복 장차 & 릴레이, 단체줄넘기, 장기자랑, 심폐소생술 등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군의용소방대는 현재 24개 대 500여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재난과 화재현장에서 지역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하며, 주변의 독거노인, 기초수급생활자,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민의 안녕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적 정신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의용소방대 가족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단합되고 발전하는 의용소방대로 거듭나고,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농어촌공, 반부패 청렴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오진휴)는 지난 3일 지사대회의실에서 전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오진휴 지사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렴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정인 농지은행부장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 청렴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진휴 지사장은 "농업인에게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및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생활 밀착형 예산 확보나서

남원시가 2019년도에 확보한 국가예산이 1,0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181억원인 증가한 것이지만 생활 밀착형 SOC사업은 문화·체육시설, 복합문화 공간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등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시설들로 생활 밀착형 SOC사업을 발굴해 예산확보에 나섰다.

▲추향골 실내 수영, 족구, 배드민턴장 등 여가체육시설 확충 ▲북 카페형식 시립도서관 개선 ▲생태공원과 숲놀이터, 국민여가 캠프장 등 ▲공설시장 주변의 도시재생사업, 청년일자리 산업센터와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공공산후조리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한다.

이환주 시장은 "행복한 시민의 삶과 시 발전에 기여할 국가예산을 각 사업 위 소속 전북도 국회의원과 남원출신 향우 등의 도움을 통한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